

# “먹고 살기 힘드니 제발 경제 좀 …” 하소연

■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전하는 설 민심

“광주·전남 기업만 구조조정 호남차별”  
Samsung·Hyundai·LG 인사에 실망감 드러내

설 연휴 동안 지역구와 고향 등을 다녀온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민심의 중심에는 ‘경제’가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드니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정파적 이해 관계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광주동구)은 27일 “정부가 국민에게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놔야지 계속 경제가 어렵다고만 얘기해서 되겠느냐는 짐작이 있었다”며 “민생, 서민 경제를 살리고 취직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커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최근 대주건설과 C&C증권 등 광주·전남 지역 기업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데 대해 호남 차별이라는 시각이 많았고 영산강 살리기는 하되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사진 왼쪽), 박지원 의원(목포 오른쪽)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 연휴를 맞아 재래시장,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돌며 민심을 듣는 등 귀향 활동을 벌였다.

이 떨어져 힘들지만 세계 금융 위기

에 따른 모두의 문제로 감내할 준비는 다 돼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나서야 할 정치권은 정쟁 중이고 새 정부는 고환율, 대운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정책으로 국민에게 실망만 주고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민심을 전했다.

같은 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승

용 의원(여수을)은 “경제가 어렵다

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를 채찍질

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

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남출신 중심의 이명박 정부에서 호남경제가 더 낙후되지 않을까, 인사가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의원(민주당, 원도·해남·진도)은 “비료값 지원해 달라, 겨울

배추와 진도 대파 산지폐기 단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겨울배추 농사로 자식을 학자금 마련

하려고 했는데 생산 과정으로 이마

저도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곡성 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인 이정현 의원은 “대주건설 등 지역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 등 지역경제

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깊었

다”며 “또 용산 참사와 국회 파행,

개각에서 지역 소외 등으로 정치권

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주·전남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면 좀 더 나아질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다”고 덧

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돌고 있다.

민주당 핵심인사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다른 당들이 의사 갖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관계자는 “반 MB 전선 구축 차원에서 선거연합은 야권 정치세력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라며 “논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론으로 들어가면 각 세력간에 이해득실 관계가 엇갈릴 수 밖에 없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권 ‘反MB’ 선거연합론 대두

용산참사 계기 4월 재선거 연대 필요성 공감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은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MB악법 저지 및 용산 살인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져 결속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차원 높은 공조 단계인 선거연대

를 위한 기초토대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민주당내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와 민생민주국민회의 관계자들은 지난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선거연합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별씨부터 4월 재선거에서 상대당

의 전략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

식으로 사실상 연합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인천 부평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주당, 재선가 가능성이 점쳐지는 울산 북구에서는 민노당 또는 진

보신당 후보를 공동 지원하는 구상도

## 박근혜-이재오 ‘대조적 행보’

박, 靑 오찬 참석 여부 고심 … 조심 또 조심

이, 설 연휴 때 백두산 등정 등 융성한 활동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말을 아끼며 여전히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는 반면 ‘친이’계의 대표적 인사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중국에서 백두산을 다녀오는 등 융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계파의 이런 상반된 분위기는 현재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측과의 갈등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이고,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오는 3월 귀국 후 정치권에 안착하기 위해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내달 5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들과의 오찬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설 연휴가 지나도록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아직도 고심 중이다.

박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회동에 참석할 경우 용산참사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여온 부정적 인식을 전할 경우

당내 분란을 조성한다는 우려 때문에, 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겁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민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 중국에서 체류 중인 이 전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베이징을 떠나 설 새벽엔 천지에 올라 일출을 지켜봤다고 한 층근이 전했다. 이 전 의원은 27일 두 만강을 둘러본 뒤 하얼빈(哈尔滨)으로 이동, 안중근 의사 기념비와 독립군 항쟁지역 유적을 견학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자신을 초청한 베이징대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의원은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으로부터 ‘Visiting Professor’(초빙교수)라는 직함을 받았다.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이 외국인에게 이 직함을 부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정동준 최고위원이 활발한 입법활동과 정책 어젠더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소를 내달 5일 여의도에 설립한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LPG 한시적 세금 면제

이용섭 의원 법 개정안 제출

## 대학 등록금 상한제’ 추진

이성현 의원 법 개정안



매년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성현 의원은 24일 매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가 이드린 안에서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대학이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고등교육기술부장관이 공시하는 금액 안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